

발명업의 세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제는 가장 매력적인
우리나라 상품을 발명하여
태극기를 뒀을격야 한다”



박준석 회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한국발명협회 회장, 한국발명가협회 회장

얼 마전 ‘태극기 휘날리며’가 국내의 영화 관
련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세계속으로 힘
차게 깃발을 펴려였다.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를
넘어 태평양 대서양을 횡단, 미국 영국 등 세계의
극장가를 강타한 것이다.

한국영화가 이렇게 세계속으로 태극기를 펴려
이며 날아간 적이 없다. 정말 영화의 제목처럼 태
극기 휘날리며다.

이러한 대성공은 오랜 준비와 탄탄한 주인공의
연기, 수 많은 전문 우수인력이 모여서 만들어낸
준비된 대박이다. 100억원이 넘는 영화 수출 계약
은 자동차 수천대를 팔아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으로 영화도 이제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이라는 이
정표를 만들었다.

자원이 없고 땅덩어리도 보잘 것 없는 우리나라
는 영화든 발명품이든 많이 만들어 부가가치를 올
려 팔면된다.

국제화, 세계화의 파고는 지구촌이 커다란 공동
체라는 현실에서 반세계화의 역풍 속에서도 커다
란 소용돌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처럼 땅은
좁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국가는 국제화의
시장 속에서 살아 남지 못하면 도태할 수 밖에 없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중에서

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오대양 육대주를 누벼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문화상품이 세계 속에서 히트를 한다는 것은 이 다음 우리의 새로운 상품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월드컵 4강 후 우리의 상품이 선전 광고 없이도 잘 팔렸던 좋은 선례를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을 세계화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 상품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 요사이 우리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가장 한국적인 문화 상품들이 세계적 이목을 끌기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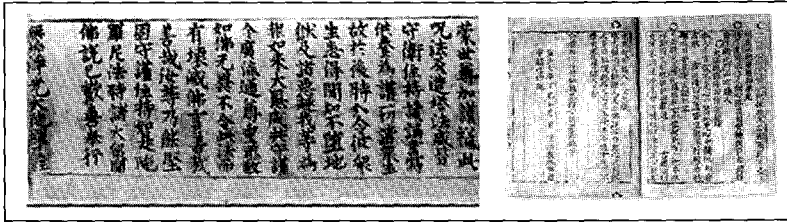
김치는 이제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고,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던 판소리도 가장 이색적인 문화 장르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난타'가 미국을 난타하는 등 가장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것이 인기를 얻고 있다.

프랑스의 포도주나 러시아의 보드카도 그들의 가장 토속적인 상품들이 세계화되어 유명해진 것이다. 우리 각 지방의 민속주나 토속주들이 세계의 다른 주류와 비교할 때 떨어질 것이 없으나 세계화를 위해서 상품화를 못하여 지방의 토속품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매력이 있는 상품을 발명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첨단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알려 세계적인 인지도를 올려 놓았기 때문에 한국의 토속적인 상품들이 세계화 되기 쉬운 토양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가 세계의 극장가에서 한국의 정서를 알리면 반감없이 한국의 토속품들이 쉽게 세계화 될 수 있다. 그러한 중흥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지, 가장 한국적인 발명을 하여 세계화를 시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창의력이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강하여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발명을 하여 사용하였다.

세계의 문화를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발명이 활자의 발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목판활자에서 금속활자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하여 사용하였었다.

세계사에서 발명일이 정확하게 기록된 문자는 한글 밖에 없다. 철갑선에 함포를 장착한 발명을 최초로 한 민족은 우리민족이다. 이러한 우수한



〈세계최초 목판 다리니경〉

〈금속활자 직지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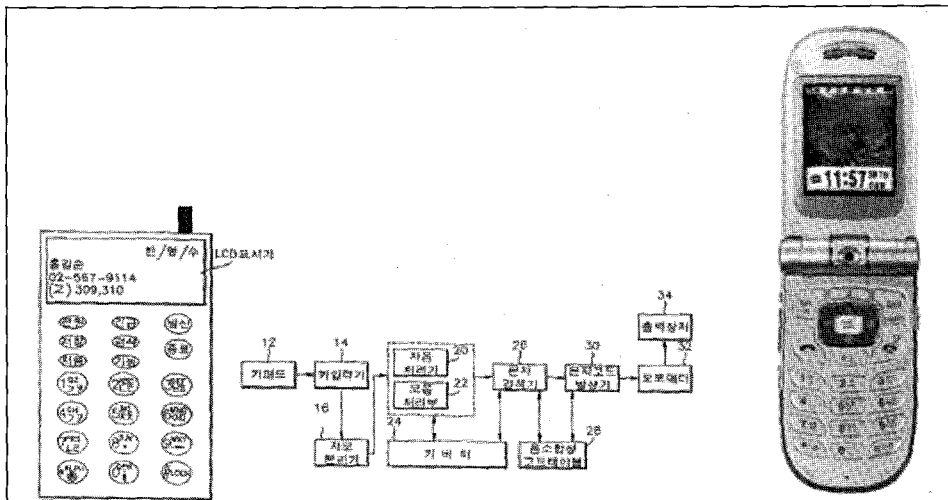
21세기는 기술정보와 문화가 꽃피는 시기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창의력과 5천 년 역사의 문화가 결합하면 세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나 발명품이 나올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

민족성이 그 동안 농경사회에서 빛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한글은 발명 당시 많은 모음 기호가 필요했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아래아(“)를 사용하면 모음 셋으로 어떤 음도 전송 기록할 수 있다. 500년 전 발명품이 디지털 시대인 21세기에 와서 빛을 보고 있다. 아래아(“)를 사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은 휴대폰 강국을 만드는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다.

휴대용 단말기는 부피를 줄여야 하는데 아래아(“)를 이용한 모음 전송방법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 단말기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하면서 태극기를 세계 방방곡곡에 휘날려야 한다. 영화에서 시작된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사회전반에 상승효과를 일으켜 우리의 새로운 발명품들이 태극기를 휘날려야 할 때이다.

이탈리아의 피자는 세계화 되었으나 우리의 '종로 빈대떡'은 한국에서만 팔릴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 상품 발명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방방곡곡에 퍼지는 또 한번의 쾌거를 보고 싶다.



〈아래아 관련 P95-11600 특허 도면〉 〈아래아 응용 휴대폰〉

발특2004/8